

내달부터 차보험료 모델별 차등화

내 차 등급은

소형차 1등급 뉴리오
대형차 1등급 SM7

가장 비싸다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된다. 소형차 중에는 뉴프라이드와 아반떼 신형 등이 가장 비싸고 프라이드가 가장 싸지는 등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이며 외제차의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른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모델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해 모델별로 과거 3년간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등급을 매겨 손해보험사들에 제시했다.

11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20%차이... 외제차 큰폭 올라

모델별 차차 보험료를 ±1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한다. 최대 11개 등급으로 나눠 6등급은 현재 자차 보험료 수준인 기본요율에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1등급은 최고 10% 할인되고 11등급은 최고 10% 할인된다.

이(이하) 차종에서는 뉴리오와 뉴프라이드, 뉴SM3, 아반떼 신형, 갈로스가 1등급으로 분류돼 자차 보험료가 가장 비싸지는 반면 프라이드는 11등급으로 가장 싸진다.

이에 따라 국산차에 비해 차 값이 비싼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지난해 차량 1대당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63만2천원이고 이중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8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자차 보험료가 모델에 따라 3만1천600원까지 차이난다

손보사들은 현재 등급별 ±10% 이내에서 세부 적용율을 마련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다인승 이외에 화물차 등 다른 차량은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천만대 가운데 약 60%가 자차 보험에 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사별로 등급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최고 20% 이내에서 차이나다도 보험료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 자차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차 보험료 모델별 차차보험료 선정기준

* 1~5등급 합중, 6등급 기본요율, 7~11등급 할인

Table with 3 columns: 등급 (Grade), 소형A (Small A), 소형B (Small B). Lists car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insurance grades.

Table with 3 columns: 등급 (Grade), 다인승 (Multi-seater), 중형 (Medium). Lists car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insurance grades.

Table with 3 columns: 등급 (Grade), 대형A (Large A), 대형B (Large B). Lists car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insurance grades.

Table with 2 columns: 등급 (Grade), 외제차 (Foreign Car). Lists foreign car models and their corresponding insurance grades.

소형A=1천cc 이하, 소형B=1천cc 초과~1천600cc 이하, 중형=1천600cc 초과~2천cc 이하, 대형A=2천cc 초과~3천cc 이하, 대형B=3천cc 초과

우리금융 회장에 박병원 前재경차관 내정
“경영권 없는 소수지분 우선 매각”

박병원(55·사진)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앞으로 3년간 우리금융지주를 이끌어 갈 회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인기 우리금융 회장 후보추천위원장(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부로부터 3명의 후보 모두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 오전 회주 위에서 심사숙고해 전원일치로 박 전 차관을 우리금융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독 후보로 선정된 박 전 차관은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과 공적 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경영권 이 포함되지 않은 소수지분의 매각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제도적, 국민정서상 여러 제약이 있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매각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인 예보 및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 노조원 20여명은 회경장 앞에서 회 추위의 대국민 사과와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방 건설시장 봄이와도 ‘꽁꽁’

경기지수 여전히 악화...수도권은 회복세
중소·대형건설사 체감경기도 양극화 뚜렷

봄철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수도권과 대형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된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및 중소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경기는 되레 악화되는 등 지역별·규모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2월중 대형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지수는 1월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81.8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체감경기 개선을 주도했다. 하지만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의 지수는 각각 1.7포인트, 0.7포인트 하락한 56.0과 46.7에 머물러 규모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업체는 5.8포인트 하락한 32.7을 기록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업계의 3월 전망에서도 두드러진다. 건설산업연구원 이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업계의 지수가 81.7로 2월보다 19.4포인트 증가했지만 규모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대형 건설업체의 전망치는 90.9를 기록하면서 건설경기 회복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중소업체의 3월 전망은 각각 76.7, 77.4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현대건설 매각’ 6개월째 표류

채권단 옛 사주문제 해결책 못찾고
이달말 주간사 선정 결의도 불투명

채권단의 ‘현대건설 새 주인 찾기’ 작업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옛사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달말을 목표로 한 주간사 선정 결의의 가능성도 희박해져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당초 작년 8월말까지 주간사 선정 방안을 결정하고 9월부터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창록 산은 총재가 옛사주인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자격 문제를 거론한 이후 6개월여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하이닉스의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옛사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주간사 선정 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서 법률자문사를 통해 옛사주 문제를 해결하자며 맞서고 있다.

“年 40% 넘는 이자는 무효”

이자제한법 통과... 6월시행
금전거래시 이자를 상한선을 연 40%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했다.

이자는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탈피해 ‘따뜻한 세정’을 표방해온 전군표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납세자 권리현장 준수 결의대회도 10년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납세자 권리 철저히 준수”

국세청 직원 결의대회

국세청 1만8천여 직원들이 6일 광주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110여개 세무관서별로 강화된 납세자 권리현장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직원들이 전국 세무관서별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997년 제정된지 10년만에 최근 개정된 납세자 권리현장의 낭독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겼다.



6일 국세청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납세자권리현장 선포식에 참석한 전군표 국세청장, 정병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 보호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사 석유 제조장 신고뎀
포상금 최고 700만원 준다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고자로부터는 6월 이란 내용을 골라주 하는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